광양 새천년백운회, 41명에 장학금 1000만원

광양 새천년백운회(회장 박래문)는 최근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웅) 대회의실에서 광양여중 3학년 심초희 학생 등 41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새천년백운회는 지난 2000년 당시 수원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현 고문)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향우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자 결성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시교육청-공동모금회 나눔 확산 협약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는 최근 교육청에서 '나눔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교재 개발과 제작, 나눔교육 강사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호남대 창업교육센터 '성공 창업캠프'

호남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 창업교육센터(센터장 이동렬 교수)는 최근 '대학생 예비 창업자를 위한 열정·창조·도전·혁신 성공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를 관광도시로' 창조포럼 순회 세미나

지난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조포럼 교통관광분과위원회(위원장 박향식)가 주최한 제3차 창조포럼 순회 세미나에서 문창현 광주발전연구원과 윤판 대한교통학회 광주지회장이 각각 '광주를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로'와 '광주 교통정책의 진단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뒤 포럼회원 및 일반 시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 주관 '한국문화체험' 참여 日 도쿄 국사관대 학생 18명

지난 1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카페에서 야마키 겐시로 (왼쪽)씨와 아카자와 하루카 씨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5·18로 한국 민주주의 다시 봤어요"

"불과 30여 년 전 광주에서 5·18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특히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본 후 광주 동구 구도청을 찾았는데 시민을 향해 군인들의 사격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지만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광주를 찾아 5·18을 보고 느끼며 한국과 민주주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전남대학교 공공행정연구소(소장 오재일)가 주최하는 '일본학생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광주 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야마키 겐시로(20) 씨 등 일본 도쿄 국사관대학 학생 18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대학교와 일본 자매대학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두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 마련됐다. 일본 학생들은 약 3주 동안 한국어 강좌를 들으며 한복 입기·태권도 등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아카자와 하루카(여·20) 씨와 야마키 겐시로 씨는 지난 12일 국립 5·18민주묘지와 구도청을 찾았다. 광주에 처음 온 학생들은 한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얼마 전 5·18민중항쟁이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본 학생들은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두려움을 이겨낸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한국과 광주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 하면 '케이팝'과 '서울'만 떠올랐다는 아카자와 씨는 첫 한국 방문에 앞서 광주라는 도시를 작고 조용한 곳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전남대학교에서 한국 학생들과 수업을 듣고 시내를 둘러보며 역동적인 모습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쿄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온 야마키 씨는 한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두 나라 청년들이 서로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정부와 언론이 역사나 영토갈등을 부각시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대학생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청년으로서 많은 공감대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일 양국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청년취업난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두 나라가 겪고 있는 취업난은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해요. 청년들도 한국과 일본 등 세계를 무대 삼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 한예종 수석 합격

〈한국예술종합학교〉

호남예술제 출신 문지영 양

불우한 가정형편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10대 피아니스트가 국내 최고의 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수석 입학해 화제다. 주인공은 여수 출신 문지영(19)양.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문양은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대학에 수석 입학생으로 선발돼 학비 전액을 면제받는다.

부모님이 지체장애 2·3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매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문양은 동네 교회와 학원을 돌며 하루 8시간씩 피아노 연습에 매진하며 꿈을 잃지 않았다. 문양의 집에 피아노가 없다는 사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로 세간의 이목을 받기도 했다.

12살 때 호남예술제 초등부 최고상, 선화음악콩쿠르 대상을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문양은 지난 2009년 한국메세나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한 '아트 드림 콩쿠르'에서 중등부 대상을 받으면서 피아니스트 김대진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인연을 맺고 본격적인 연주자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독일에서 열린 제13회 에틀링겐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2000년 손열음, 2004년 김선욱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8년 만에 1위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바 있다.

문양은 지난 1월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일본 다카마쓰, 6월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콩쿠르에 참가하는 등 올 한해 왕성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문양의 어머니 이복례(52)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꿈을 접는 아이들에게 지영이가 꿈과 희망을 전달했으면 한다"며 "지금처럼 자만하지 않고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음악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김성길 디에스중공업 대표 한국산업기술대 名博

김성길(49·사진 가운데) 디에스중공업㈜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경기도 시흥시)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이날 "다수의 대기업도 실패한 산업기술대 부지를 개발하고, 벤처기업타운 설립에 주도적인 기여를 했다"며 김 대표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지난 2007년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디에스중공업을 설립한 김 대표는 국내외 골리앗 크레인과 특수 항만 크레인, 대형석탄하역설비, 조선선박,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등을 제작하며 지난 5년간 디에스중공업이 대불산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둔 DS엔지니어링을 통해 신기술 개발 및 플랜트 분야 핵심기술을 집약화해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김 대표는 디에스중공업과 대성중공업, DS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에서 6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역 소외가정돕기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YMCA 신임 이사장에 송인동씨

아시아·태평양YMCA동맹 송인동 부회장이 광주YMCA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광주YMCA는 지난 13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아시아·태평양YMCA동맹 송인동 부회장을 제40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계양 언어논술 아카데미 원장과 표경식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을 각각 부이사장에 임명했다. 서기이사엔 이병용 해밀테크 대표이사와 노강규 변호사가 내정됐다.

취임식은 오는 27일 오후 6시30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해남 윤고산장학회, 고교생 10명에 장학금

(재)윤고산장학회(이사장 윤영달)는 최근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동기)에서 지역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해남지역 고교생 10명을 추천받았으며, 이들에게는 각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이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산 14대 종손 윤형식 이사(현 서강학원 이사장)는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최윤범(전 해태타이거즈 단장)·조한옥씨 장남 진영((주) 범우총괄사업본부과장)군 백광영(전 광주일보 순천주재기자)·김경화씨 차녀 승효(송원여고 교사)양=22일(토) 오전 11시 수아비스웨딩컨벤션 1층 수아비스홀.

▲이현우(광주무지개자동차매매상사 대표)·오공례씨 차남 준용(광주무지개자동차매매상사 과장)군 김덕필(GS칼텍스 여수공장 PP생산부 팀장)·소옥분씨 장녀 소희(남도일보 편집국 전산팀)양=22일(토) 낮 12시 S타워웨딩컨벤션홀 3층 메리골드홀.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월례회의(회장 이철환)=18일(화) 오후 7시 010-3601-1422.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회(회장 이보희) 월례회의=22일(토) 오전 11시 010-3605-2059.

동창동문회

▲조선대학교 전기공학과 총동문회(동문회장 노진양) 정기총회=21일(금) 오후 6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연회장 010-3627-371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모집

▲2014년 시민 학생 인문강좌(수신제가치국평천하)=과목은 논어(論語) 대학(大學),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광주 YMCA 2층 울안(국민 누구나 수강 가능) 010-3625-5433.

▲동구자원봉사센터=전문봉사단 육성 교육생 모집- 동화구연·수지침, 교육 후 봉사활동가능한자, 경로당 전문강사모집-건강증진·여가 프로그램진행가능자, 전문재능봉사단체 모집-교육·문화·이미용·주거환경개선·마사지·홍보 등 모집 기간은 28일(금) 062-228-1365.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월 25일(화·1차), 3월 4일(2차), 오후 6시30분 ~ 9시, 광주대 호심관7층(707호) 양택, 음택·수맥, 나경·입향론, 비결록명당, 장법요강 등 진정한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책자무료제공) 010-3609-8117.

▲광주유교대학 학생=1학년 신입생 50명(월·수 오후 3시 30분~5시 30분)·2학년 편입생 20명(화·목 오후 3시 30분 ~5시 30분), 성별·학력·나이 제한없음·2년간 학업이수자는 졸업과 동시에 성균관 유학대학원 수료증 수여, 접수기간은 28일까지 062-672-7008.

▲팔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원장님 1 : 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협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살레시안 가족합창단원 모집(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부음

▲신만종씨 별세 진오·인성·일순·부임·순희·혜령씨 부친상=발인 18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황성수 님(남/80세)
女/壻 : 황현자/정인학, 카나리아/정세진, 세레나/안홍재, 송미나/정영식
未亡人 : 김배옥
• 호 실 : 201호 • 발 인 : 2월 17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1

301호 故박종현 님(남/83세)
子/子婦 : 박호수, 광수/정재님, 성수/정복순
未亡人 : 최용단
• 호 실 : 301호 • 발 인 : 2월 17일
• 장 지 : 임실호국원 • 연락처 : 227-4382

402호 故정순례 님(여/80 세)
子: 남기호, 기도, 기삼, 기성
女/壻 : 남금숙/김희식, 금희, 금화/정병주
• 호 실 : 402호 • 발 인 : 2월 17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101호 故육현심 님(여/57세)
女/壻 : 성진욱/이혜진 女/壻 : 성기은/윤경인
夫君 : 성명호
• 호 실 : 101호 • 발 인 : 2월 17일
• 장 지 : 영광 법성 선영 •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서명준 님(남/79세)
子/子婦 : 서종영/이진실, 만영 女 : 서 영 未亡人 : 나정선
• 호 실 : 102호 • 발 인 : 2월 18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